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및 이용 결정요인

손 병 돈

(평택대학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외국인배우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 및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항로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이 같을 때,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국인이나 한국인 지지망이 많을수록, 참여하는 모임이 많을수록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클수록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능력이 떨어질수록, 조선족이나 중국출신보다는 러시아, 태국, 몽골 등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모국인의 지지망이 강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필요성이 클수록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없는 배우자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여부와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분적으로 상이하였다. 특히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어를 잘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를 못할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용어: 다문화 가족의 외국인 배우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적 지지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여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여부

■ 투고일: 2014.10.31 ■ 수정일: 2014.12.11 ■ 게재확정일: 2014.12.24

I. 서론

1980년대 말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으로 시작된(이오복, 2009)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결혼은 그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4년 7월 현재 결혼이민자가 약 25만명에 이르고 있다(법무부 출입국 외국정책본부, 2014). 이제 결혼이민자는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우리 이웃의 하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들의 한국 사회 적응은 결코 쉽지 않다.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갈등,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전기택 외, 2013), 다문화가정의 높은 이혼율은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 가족들의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우리사회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도와왔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214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의사소통, 가족관계향상 등 다문화 가족 통합교육 및 취업교육, 언어 교육 등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컨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관련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 기관이다(강복정, 2012).

하지만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들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2013년 현재 다문화가족들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은 26.5%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혜영·이현선, 2014).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기도 한다.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27%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다문화가족 중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결혼이민자의 37.3%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지만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명실공히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대표적 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들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차적인 작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들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여부와 이용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구별하여 규명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인지하는 것과 이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인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에게는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며, 인지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다문화가족에게는 그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문화가족들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은 지금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문화가족들을 지원하는 단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몇편 있을 뿐이다(이주재·김순규, 2010; 이오복, 2011; 김안나·최승아, 2012; 서지은·최현미, 2012; 김혜미, 2013).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가족들의 특정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결정요인과는 상이하다. 더욱이 이들 연구들은 다문화가족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를 구분할 때 그러한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족들도 모두 이용하지 않는 범주로 분류하여 이용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들이 그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것인지 또는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연구들의 결과가 제시하는 다문화가족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결정요인도 그 사회복지서비스를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요인들과 그 서비스를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은 요인들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아,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도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들의 다문화가족센터 인지 여부와 이용여부를 구분하여, 각각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나아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알고 있는 다문화가족외국인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검토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황 및 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처음 설립된 것은 2006년이다. 정부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1개의 시군구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신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되었다, 이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되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현재 214개에 달한다(여성가족부, 2014). 경기도가 30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서울이 24개소, 경북 23개소, 제주도 2개소 등 전국 거의 모든 기초 자치단체에 1개소 이상이 설치되어 운영 되고 있다.

표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현황

(단위: 개소)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센터	24	9	7	9	4	5	5	1	30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센터	16	12	14	14	20	23	19	2	214

자료: 여성가족부(20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 도모를 사업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이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기관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교육, 상담, 문화 및 홍보,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공통으로 추진하며, 특히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 가족 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서비스를 주요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에서 한국어교육 서비스가 다문화가족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2008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총 참여인원은 615,802(연인원)이었는데, 그 중 한국어사업 참여자가 311,555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정서지원사업 참여자가 118,045명, 다문화가족역량 강화사업에 74,566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박정윤, 2009; 전국다문화가족사업단, 2008).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다문화가족의 이용 경향은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기본사업별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이용의 약 46%가 한국어 교육이었으며, 다음이 다문화가족통합교육으로 26.2%, 다문화가족 취업연계지원이 11.2%, 다문화가족자조모임이 5.0%, 개인 및 가족 상담이 2.1%이다(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2012).

표 2. 2013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통사업

	세부 프로그램	공통(필수)	선택	비고
	한국어교육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특별반	400시간
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가족의사소통프로그램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부부, 배우자 교육 프로그램 ·아버지 교육 ·다문화 이해 및 인식교육 ·법률과 인권교육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결혼과 가족의 이해 ·가족의 의미와 역할 ·배우자 이해 프로그램 ·예비, 배우자교육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향상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자녀건강지도, 자녀생활지도 ·한국사회적응교육, 소비자, 경제교육 등	60시간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취업기초소양교육 ·워크넷 등록 및 연계		워크넷 3건 이상
상담		·가족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례관리, 심리검사 ·외부상담기관 연계	연간 80시간 이상
문화	나눔봉사단	·나눔봉사단 구성 및 운영 ·봉사자 소양 교육		6시간 이상 (소양교육)
	자조모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홍보 및 정보제공		·다문화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지역사회네트워크 강화, 정보제공		

자료: 여성가족부(2013); 변화순(2014).

다문화가족에게 한국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처별로 보면, 여성가족부가 17개 서비스로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 정부지원 여성센터, 고용센터, 외국인 상담소 등 민간단체가 있다(전기택 외, 2013).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 및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토

여기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 및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살펴 볼 것이며,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모델 설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이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의 검토는 다문화가족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인지도에 관한 실증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도 많지 않다. 이러한 연구들도 사회복지서비스, 더 나아가 휴먼서비스의 이용 및 인지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도 사회복지서비스나 휴먼서비스의 이용여부와 관련한 기존 실증연구들을 아울러 검토할 것이다.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서비스 등 휴먼서비스의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Anderson과 Newman(1973)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석모델을 적용하였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분석모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관련 분석모델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소인요인(predisposing factors), 가능요인(enabling factors), 욕구요인(need factors)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소인요인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성, 연령, 교육, 직업, 인종 등의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능요인은 대상자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요인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개인 및 가족의 자원, 지역사회 자원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이 요인에 포함되는 변수로는 언어능력, 소득, 의료보험의 지위, 비공식적 지지, 거주지역 등이다. 욕구요인은 대상이 되는 서비스와 관련한 대상자의 직간접인 욕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료와 관련해서는 건강상태, 질병에 대한 인지, 자각증상 등이다(Anderson, 1995; 김안나·최승아, 2012).

이러한 Anderson과 Newman의 분석모델을 기초로 하여 결혼이민자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결혼이민자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인요인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출신국적, 거주기간, 직업 등의 변수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이 결혼이민자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다. 대체로 다문화가족의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직업이 없는 경우가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나 이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김안나·최승아, 2012; 서지은·최현미, 2012), 연령과 교육수준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이주재·김순규, 2010), 취업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김혜미, 2013)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연구에서 성변수를 투입한 경우는 별로 없는데¹⁾, 외국의 경우 성 역시 이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서 중요한 변수로 상정된다(Gill et al., 1998; Kadushin, 2004; 김안나·최승아, 2012). 김혜미의 연구(2013)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출신국적에 따라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조선족보다는 다른 출신 국가의 다문화가족들이 더 많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김안나·최승아, 2012; 김혜미, 2013).

기존 연구들은 가능요인으로 경제적 수준, 거주지역, 한국어능력, 비공식 지지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등을 상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대체로 한국어능력이 우수할수록, 모국인과의 관계가 강할수록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확률이나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기존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김안나·최승아, 2012). 하지만 다문화가족의 경제수준

¹⁾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연구는 대체로 다문화가족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연구에서 성 변수를 상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09, 2012)의 경우, 다문화가족의 범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뿐만 아니라 외국 출신 남성과 한국 여성간 결혼 가족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도 조사 범위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전기택 외, 2013)

이나, 거주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등의 변수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수준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서지은·최현미, 2012; 김혜미, 2013)가 제시되는가 하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사회복지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연구결과(이주재·김순규, 2010)가 있기도 하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안나·최승아, 2012)도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망이 많을수록 특히 모국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많을수록 다문화가족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이주재·김순규, 2010; 김안나·최승아, 2012; 김혜미, 2013).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 수급하지 않는 가구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김혜미, 2013)는 연구결과도 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욕구요인으로 대상 서비스의 욕구정도, 건강상태, 미취학자녀 유무 등을 상정하고 있다. 대상 서비스의 욕구가 클수록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김혜미, 2013),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미취학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많을수록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나 이용수준이 높은 것(이주재·김순규, 2010; 김안나·최승아, 2012)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분석모델을 설정할 것이다. 소인요인 변수로는 연령, 한국거주기간, 취업, 성, 교육수준, 출신 국적 등을 고려할 것이며, 가능요인 변수로는 한국어능력, 참여하고 있는 모임수, 사회적 지지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거주지역, 가족내 의사결정에 대한 본인의 주도 정도 등을 고려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망에는 기존 연구에서처럼 출신국 사회적 지지망, 한국인 사회적 지지망, 기타 국적 외국인 지지망을 모두 고려할 것이며, 이 외에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나 단체의 수를 통해 다른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고려할 것이다. 결혼이민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배우자나 다른 가족원들의 동의나 격려 등이 중요하다는 점(여성부, 2006; 이해경, 2007; 성향숙, 2010)에서 본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달리 결혼이민자의 가정 내 권력 정도를 측정할 변수를 가능요인의 한 변수로 고려하고자 한다.

욕구요인으로는 건강상태, 미취학자녀 유무, 경제적 수준, 사회서비스의 필요정도 등의 변수들을 분석모델에 투입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분석대상의 경제수준이나 소득수준을 가능요인으로 고려하지만, 본 연구는

욕구요인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에게 이용료 없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소득은 서비스 이용하는데 자원으로 고려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취업이나 가족상담과 같이 분석대상의 욕구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들도 거의 없다. 단지 노인 복지서비스나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가 몇편 있는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인지도와 관련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 및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욕구, 자원요인들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성, 연령, 거주지역, 학력, 직업, 국적 등이 고려된다(조주은, 2003; 김태일·도수관, 2005; 김신영, 2006). 장애인의 경우 저학력, 무직이나 고연령층 일수록 정보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정보획득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지식격차가설이 주장되기도 한다(Tichenor et al., 1970; 이중섭, 2009). 또한 이민자의 경우 국적이나 거주지역에 따라 그 사회내에서 적응양식이 다르다는(설동훈·윤홍식, 2008; 이용재·배화숙, 2008)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도 국적이나 거주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경우, 도시와 농촌간 인지도에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고(김성한·윤은숙, 2009), 서비스에 따라 도시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와 농촌 지역 결혼이민자간 인지도가 다르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농촌 지역 거주자가 인지도가 더 높고, 가족상담 서비스나 취업지원의 경우 도시지역 거주자가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김이선 외, 2008).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도 경제, 사회적 자원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기존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여 소득수준이나 빈곤 정도 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상이한데, 소득이 낮거나 빈곤할 경우 컴퓨터 등 정보화 정도가 떨어

지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주장된다(이중섭, 2009). 또한 이웃과의 관계 등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망이나 사회적 관계망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연구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며(김신영, 2006), 공공부조를 수급하지 않은 사람이 수급하는 사람보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한다(이중섭, 2009). 이처럼 소득수준이나 사회적 지지망, 공공부조의 수급여부 등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된다.

기존연구들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욕구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한다. 김신영(2006)은 욕구가 큰 노인일수록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지만, 그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크게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즉 성, 연령, 교육 등과 같은 소인요인, 소득수준이나 사회적 지지망과 같은 가능요인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한 필요정도와 같은 욕구요인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분석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분석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2년도 수행한 '20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이다.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의 조사모집단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정의하는 다문화 대상자와 해당가구 및 가구원이다. 즉 한국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과 결혼한 기타이민자(외국인), 인지

또는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한국인)인 다문화 대상자와 다문화 대상자의 가구, 가구원이다(전기택 외, 2013). 이 자료는 이러한 모집단에서 15,341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이 자료에 있는 한국인 배우자를 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중 1990년 이후부터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람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다문화가족이 아닌 다문화가족의 외국인배우자로 설정한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 및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인데,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 및 이용여부를 질문한 대상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는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를 포함하므로, 아주 오래 전부터(60년 이상)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으로 이슈화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 한국인과 외국인간 결혼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다문화가족문제가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시 그 이후의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1990년 이후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한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배우자로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제 분석에 사용하는 표본은 14,260 사례이다.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는 2012년 7월 10일부터 31일 까지 통계청 주관으로 전문조사원들에 의해 정보가 수집되었다. 이 자료는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배우자와 관련하여, 한국어 사용정도, 사회적 지지망,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 및 이용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런데 가구 소득 정보의 경우 전체 표본 수 14,260 중 결측치가 무려 9,300 사례나 될 정도로 너무 많아, 변수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구의 소득을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배우자가 본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변수로 대체하여 이용할 것이다.

2. 분석방법

가.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방법은 이항로짓분석(binary logistic analysis)이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이분변수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여부와 이용여부 2가지를 사용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여부 변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고 있으면 1을 알지 못하면 0의 값을 부여하고, 0을 기준변수로 사용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여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면 1을, 알지만 이용하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며, 0을 기준변수로 사용한다. 여기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지 못하는 다문화가족들은 분석에서 제외된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표 3>과 같다. 소인요인 변수로 연령, 성, 학력, 거주기간, 취업여부, 국적 등의 변수를 설정한다. 연령 변수는 조사시점인 2012년 7월 현재 만 나이로 측정하고, 성은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의 값을 부여한 더미(dummy)변수로 기준변수는 0이다. 학력은 고졸이면 1, 전문대 졸 이상이면 2, 중졸 이하면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며, 기준변수는 중졸이하이다. 거주기간은 2012년 7월 현재 한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측정한다. 취업여부는 취업했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다. 국적 변수는 출신국적으로 측정했으며 조선족이면 1, 조선족이 아닌 중국이면 2, 베트남 3, 필리핀 4, 기타 국적은 0의 값을 부여한 더미 변수이고, 기준변수는 기타국적이다.

표 3. 종속 변수 및 독립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명	측정	
종속 변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여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고 있으면 1, 모르면 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여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한 적 있으면 1, 알지만 이용한 적 없으면 0	
독립 변수	소인 요인	연령	만 나이
		성	여성 1, 남성 0
		학력	고졸 1, 전문대졸 이상 2, 중졸 이하 0
		거주기간	한국내 거주년수
		취업여부	취업 1, 미취업 0
		국적	조선족 1, 중국 2, 베트남 3, 필리핀 4, 기타 0
	가능 요인	한국어능력	1)말하기 2)듣기 3)읽기 4)쓰기 각각 5점 척도의 총합(1-20 점). 높을수록 한국어 잘 함.
		모국인 지지망	1)본인이나 집안문제 의논 상대 2)일자리 관련 의논 상대 3)자녀교육 관련 의논 상대 4) 여가나 취미생활 같이 하는 사람. 각 범주별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으로 각 범주의 합(0-4점)
		한국인 지지망	1)본인이나 집안문제 의논 상대 2)일자리 관련 의논 상대 3)자녀교육 관련 의논 상대 4) 여가나 취미생활 같이 하는 사람. 각 범주별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으로 각 범주의 합(0-4점)
		기타국 지지망	1)본인이나 집안문제 의논 상대 2)일자리 관련 의논 상대 3)자녀교육 관련 의논 상대 4) 여가나 취미생활 같이 하는 사람. 각 범주별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으로 각 범주의 합(0-4점)
		참여모임수	1)자녀 학교 학부모 모임 2)모국인 친구모임3)지역 주민 모임 4)봉사, 취미활동 5)단체활동 각 범주별 참여 1, 비참여 0의 값의 합(0-5점)
		가족내 권력정도	1)자녀교육 2)재산관리 3)생활비지출 각각 5점척도. 본인 결정 5점, 배우자 결정 1점. 각 범주의 총합
		기초보장수급여부	기초보장 수급 1, 비수급 0
		거주지역	동지역 거주 1, 읍면지역 거주 0
	욕구 요인	경제수준	한국 가족의 주관적 경제 계층. 가장 못사는 가족이면 1, 가장 잘 사는 가족 이면 11. 11점 척도
		사회서비스 필요정도	10가지 사회서비스의 필요정도의 총합
		건강수준	5점 척도. 5점 매우 좋음.
		미취학아동유무	6세 미만 아동 있으면 1, 없으면 0

* 더미변수의 기준변수는 변수값이 0인 집단임.

가능요인 변수로는 한국어능력, 모국인 지지망, 한국인 지지망, 기타 외국인 지지망, 참여모임수, 가족내 권력정도, 기초보장수급여부, 거주지역 등의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한국어 능력 변수는 ①말하기 ②듣기 ③읽기 ④쓰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범주에 대해 잘하면 5점, 못하면 1점을 부여한 5점 척도인데, 이 4범주 값들의 총합으로 측정한다. 사회적 지지망 변수는 모국인 지지망, 한국인 지지망, 기타 외국인 지지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각각은 ①본인이나 집안문제 의논 상대 있으면 1, 없으면 0 ②일자리 관련 의논 상대 있으면 1, 없으면 0 ③자녀교육 관련 의논 상대 있으면 1, 없으면 0 ④여가나 취미생활 같이 하는 사람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을 부여하고, 이 4 범주의 값을 더한 값으로 측정한다. 참여 모임 수 변수는 ①자녀 학교 학부모 모임 ②모국인 친구모임 ③지역 주민 모임 ④봉사, 취미활동 ⑤단체활동 각 범주별로 참여한 적이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을 부여한 후 5개 범주의 총합으로 측정한다. 가족내 권력정도 변수는 ①자녀교육 ②재산관리 ③생활비지출 각각의 범주별로 본인이 주로 결정하면 5점, 배우자가 주로 결정하면 1점을 부여한 후, 이 3 범주 값들의 총합으로 측정한다. 기초보장수급여부 변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을 부여한 더미 변수로 없는 경우가 기준변수이다. 거주지역 변수는 응답자가 동지역에 살면 1의 값을 부여하고,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 0의 값을 부여한 더미 변수로 읍면지역 거주가 기준변수이다.

욕구변수로는 사회서비스 필요정도, 경제수준, 건강수준, 미취학자녀 유무 등의 변수들을 설정한다. 사회서비스 필요정도는 ①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한국어 교육, 자녀지도 등), ②한국어 또는 한국사회 적응교육, ③통·번역 서비스 지원, ④임신·출산 지원, 부모교육, ⑤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 교육, ⑥언어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육, ⑦자녀 생활 및 학습지원, ⑧사회활동 지원, ⑨가족 상담, ⑩일자리 교육, 일자리 연계, 각 항목별 필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합산한 값으로 측정한다. 경제수준 변수는 11점 척도로 응답자가 본인 가족이 가장 못사는 가족으로 생각하면 1, 가장 잘사는 가족으로 생활수준을 생각하면 11의 값을 부여한 서열변수이다. 건강수준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점수가 클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이다. 미취학 자녀 유무 변수는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없는 경우가 기준변수이다.

나.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방법은 이항로짓분석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여부에 대한 이항 로짓분석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여부에 대한 이항 로짓분석을 주요한 분석으로 진행한다.

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종속 변수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라는 이분변수나 이용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 수(이주재·김순규, 2010; 이오복, 2011; 김안나·최승아, 2012; 서지은·최현미, 2012; 김혜미, 2013)를 사용하였다. 이용여부는 대상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으며, 대상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에는 대상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그 서비스를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둘 다를 포함한다. 그런데 대상 서비스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인지하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상이하다.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관련 사회복지서비스를 모르는 경우, 그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그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여부에 대한 분석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지 못하는 다문화가족들을 분석대상에서 배제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측정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여부는 별도의 이항 로짓분석을 통해 그 요인을 규명할 것이다.

IV.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및 이용 여부 결정요인 분석결과

여기서는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들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여부 및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항 로짓분석을 통해 살펴 볼 것이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4>는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결혼이민자 등 외국 출신 배우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1~40세가 30.9%로 가장 많고, 다음이 21~30세로 28.7%, 41~50세가 23.2%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평균 연령은 38.1세로 나타난다. 성비를 보면, 남성이 18.9%, 여성이 81.1%로 다문화가족의 대부분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학력은 고졸이 45.2%로 가장 많고, 중졸이 22.6%, 대졸 이상이 13.8%, 전문대 졸이 8.8%, 초등 졸 이하가 9.5%의 분포를 보인다. 다문화가족의 외국 출신 배우자의 한국 거주기간을 보면, 평균이 7.9년이고, 5년 이하가 37.5%, 6~10년이 34.7%, 11~15년이 19.1%로 대다수가 2000년 이후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취업여부를 보면, 취업한 경우가 57.7%, 미취업한 경우가 42.3%로 나타나고, 출신국적은 조선족이 34.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국계이며, 베트남이 18.3%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가정의 주관적 경제적 수준을 보면, 중간수준이라는 대답이 47.4%이고, 못하는 편이 34.1%이며, 잘사는 편이라는 응답은 18.5%에 그친다. 분석 대상자들의 한국어 수준은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11.9%, 보통 이하라는 응답이 27.3%,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이 12.3%,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48.5%로 조사되었다. 다문화 가족 외국 출신 배우자들의 사회적 지지망을 보면, 개인이나 가족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일자리 관련하여 의논 상대, 자녀 교육 관련 의논 상대, 여가나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 등의 영역에서 의논할 모국인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고, 1명이라는 응답이 18.5%로 다음으로 많으며, 4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8.5%나 된다. 같은 경우에 의논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의 분포도 비슷하다. 의논할 수 있는 한국인이 없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고, 2명 있다는 응답이 16.8%, 4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1.0%이다. 하지만 모국 출신이나 한국인이 아닌 사람으로 위의 범주들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보여주는 변수라 할 수 있는 참여모임수 변수는 분석 대상자들이 참여한 적이 있는 모임이나 단체 종류 수를 측정한 것인데, 평균적으로 1개 정도로 조사되었다. 가족내 권력 정도 변수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가정내 재산관리, 자녀교육, 생활비 지출에서 본인과 배우자 중 누가 결정하는가의 정도를 측정한 것인데,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	변수	구분	%
연령	20세 이하	2.5	모국인 지지망	없음	43.6
	21~30세	28.7		1명	18.5
	31~40세	30.9		2명	16.0
	41~50세	23.2		3명	13.3
	51~60세	9.5		4명	8.5
	61세 이상	5.3		계	100.0
	계	100.0			
	평균(S.D.) 38.1(12.004)				
성	남성	18.9	한국인 지지망	없음	41.6
	여성	81.1		1명	15.5
	계	100.0		2명	16.8
		3명		15.1	
학력	무학	1.4	기타 외국인 지지망	4명	11.0
	초졸	8.1		계	100.0
	중졸	22.6		없음	95.3
	고졸	45.2	1명	2.7	
	전문대졸	8.8	2명 이상	2.1	
	대졸 이상	13.8	계	100.0	
	계	100.0	참여모임수	평균(S.D.) 1.0(1.025)	
	평균(S.D.) 7.9(4.864)				
거주 기간	5년 이하	37.5	가족내 권력 정도	본인 주도(3점 초과)	32.6
	6~10년	34.7		공동(3점)	25.3
	11~15년	19.1		배우자 주도(3점 미만)	42.1
	16년 이상	8.7		계	100.0
	계	100.0			
	평균(S.D.) 7.9(4.864)				평균(S.D.) 2.9(1.203)
취업 여부	취업	57.7	기초보장 수급	수급	3.0
	미취업	42.3		비수급	97.0
	계	100.0	계	100.0	
출신 국적	조선족	34.6	거주지역	도시	78.2
	중국계	22.9		농어촌	21.8
	베트남	18.3	계	100.0	
	필리핀	5.3	사회서비스 필요도	매우 필요함	6.3
	기타	18.9		필요한 편임	18.4
계	100.0	보통		45.5	
		필요하지 않은 편임		19.8	
			전혀 필요하지 않음	10.0	
			계	100.0	
경제적 수준	못사는 편(5점 이하)	34.1	건강수준	매우 좋음	40.7
	중간 수준(6점)	47.4		좋음	21.5
	잘사는 편(7~11점)	18.5		보통	27.3
	계	100.0		나쁨	7.7
	평균(S.D.) 5.5(1.924)			매우 나쁨	2.9
한국어 수준	못하는 편(8점 이하)	11.9	미취학아동 유무	있음	39.0
	보통 이하(9~12점)	27.3		없음	61.0
	보통 이상(13~15점)	12.3	다문화센터 인지 및 이용	모른다	27.0
	잘하는 편(16~20점)	48.5		알지만 이용하지 않음	37.3
	계	100.0		이용하고 있음	34.8
	평균(S.D.) 14.7(4.628)				

본인이 주도한다는 응답이 32.6%, 배우자가 주도한다는 응답이 42.1%로,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25.3%로 조사되었다. 분석 대상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3.0%이었으며,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78.2%, 농어촌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21.8%로 나타나 다문화 가족들이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지역 거주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서비스 필요도 변수는 현재 다문화 가족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10개의 범주로 나누어, 각각의 범주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합산한 후 그 평균값으로 구분한 것인데, 보통 정도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9.8%, 필요하다는 응답이 18.4%로 조사되었다.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정도는 매우 좋음이 40.7%, 좋음이 21.5%, 보통이 27.3%로 대체로 나쁜 편임이 7.7%, 매우 나쁨이 2.9%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는 39.0%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인지 및 이용여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모른다는 응답이 27.0%로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으며, 알지만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7.3%로 꽤 높은 편이었으며, 이용한다는 응답은 34.8%로 조사되었다.

<표 5>는 다문화가족 외국 외국인 배우자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모르는 집단, 알지만 이용한 적이 없는 집단, 알고 있고 이용한 적도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되는 주요 독립변수들의 분포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성변수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모른다는 집단의 남성 비중이 2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이 없다는 집단으로 19.6%가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알고 있고 이용한 적도 있다는 집단은 남성의 비중이 2.6%로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다.

표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및 이용여부별 대상자 특성 비교

변수명	구분	모른다 %	알고 있고 이용한 적 있다 %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다 %
성	남성	28.6	2.8	19.6
	여성	71.4	97.2	80.4
취업여부	취업	39.7	46.6	59.1
	미취업	60.3	53.4	40.9

변수명	구분	모른다 %	알고 있고 이용한 적 있다 %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다 %
거주지역	도시	82.3	55.6	72.1
	농어촌	17.7	44.4	27.9
출신국적	중국계	23.4	13.8	22.7
	조선족	25.1	8.6	28.8
	베트남	9.0	22.6	8.0
	필리핀	4.9	17.6	6.3
	기타	37.6	37.5	34.2
모국인지지망	1.30(1.38)		1.53(1.416)	1.13(1.326)
한국인지지망	1.43(4.53)		1.38(1.420)	1.56(1.464)
연령	39.89(12.694)		32.71(8.878)	39.02(11.110)
학력	3.19(1.376)		3.0(1.211)	3.25(1.254)
거주기간	8.28(5.124)		6.59(4.623)	8.66(4.995)
한국어수준	14.40(4.54)		12.84(3.903)	15.03(4.630)
경제적 수준	5.58(2.019)		5.81(1.806)	5.70(1.925)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 여부를 비교해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모른다는 집단은 취업한 경우가 39.7%, 알고 있고 이용한 적도 있다는 집단은 46.6%, 알지만 이용한 적이 없다는 집단은 59.1%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지만 이용한 적이 없다는 집단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는 집단이 도시 지역 거주 비율이 55.6%로 가장 낮고, 반면 모른다는 집단의 도시 지역 거주 비율이 82.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적 분포를 비교해 보면, 다문화가족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다는 집단의 외국인 배우자가 중국이나 조선족인 비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다는 집단의 외국인 배우자가 연령 및 학력 수준,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수준의 평균값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적이다. 그 외 다른 변수의 평균값은 세 집단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및 이용여부에 대한 로지분석 결과와 논의

<표 6>은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들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소인요인 변수들을 보면, 연령, 성, 거주기간, 취업, 출신국적 변수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독립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취업한 경우보다 비취업한 경우에 필리핀 출신 외국인 배우자가 기타 국가(일본, 몽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출신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젊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의 정보에 더 밝고, 또한 한국사회에 오래 거주할수록 사회복지서비스 등 본인에게 필요한 자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더 민감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정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변수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의외이다. 하지만 다음의 가능요인 변수인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내 다문화기관 등 생활관련 정보는 모국에서의 학력보다는 한국어 수준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가능요인 변수들이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배우자들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여부에 대한 영향을 보면, 한국어 능력, 모국인 지지망, 한국인 지지망, 참여모임수, 거주지역 변수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한국어능력이 좋을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 가능성이 높으며, 자국 출신 지지망이 많을수록, 한국인 출신 지지망이 많을수록 그리고 참여모임의 숫자가 많을수록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거주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살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필요한 정보를 알려면, 한국어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자국 출신이나 한국인 사회적 지지망이 많을수록 생활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습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확인되고 있다. 참여모임수 역시 사회적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변수이므로, 많은 네트워크를 가질수록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인지하더라도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도시 지역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지역 결혼이민자 보다 농촌지역 결혼이민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다는 김이선 외(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욕구요인 변수들의 영향을 보면, 사회서비스필요도, 미취학아동유무 변수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이 같을 때, 사회서비스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배우자일수록, 미취학아동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도 욕구가 큰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욕구가 큰 노인일수록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는 김신영(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표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여부에 대한 이항 로짓분석 결과

		B	S. E.	Wald	df	sig	Exp(B)
소인 요인	연령	-.015	.003	28.864	1	.000	.985
	성						
	여성	.890	.064	196.297	1	.000	2.435
	학력						
	고졸	.096	.058	2.762	1	.097	1.100
	전문대졸 이상	-.083	.068	1.480	1	.224	.920
	거주기간	.013	.006	5.058	1	.025	1.013
	취업여부						
	취업	-.102	.050	4.202	1	.040	.903
	출신국적						
	조선족	-.087	.073	1.428	1	.232	.916
	중국	-.026	.069	.139	1	.709	.974
베트남	.068	.084	.657	1	.418	1.071	
필리핀	.524	.095	30.391	1	.000	1.689	

		B	S. E.	Wald	df	sig	Exp(B)
가능 요인	한국어능력	.022	.006	14.555	1	.000	1.023
	모국인 지지망	.060	.019	10.291	1	.001	1.062
	한국인 지지망	.051	.018	8.075	1	.004	1.052
	기타 지지망	-.004	.044	.010	1	.920	.996
	참여모임수	.217	.024	78.828	1	.000	1.242
	가족내 권력	-.018	.021	.797	1	.372	.982
	기초보장수급여부 수급	.285	.176	2.644	1	.104	1.330
	거주지역 도시	-.749	.055	187.139	1	.000	.473
욕구 요인	경제수준	.014	.012	1.308	1	.253	1.014
	사회서비스필요도	.016	.002	55.271	1	.000	1.016
	건강상태	.015	.023	.423	1	.516	1.015
	미취학아동유무 있음	.277	.053	27.681	1	.000	1.320
	상수향	.185	.229	.654	1	.419	1.203
N				10,368			
-2Log likelihood				12565.746			

* 성, 학력, 취업여부, 출신국적, 기초보장수급여부, 거주지역, 미취학아동유무 등 더미변수의 기준변수는 남성, 중졸이하, 미취업, 기타국적, 비수급, 농촌, 미취학아동 없음임.

<표 7>은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소인요인 변수 중 유의수준 .05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성, 학력, 거주기간, 출신국적 변수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적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고졸이나 전문대 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보다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신국적 변수의 영향을 보면, 다른 변수가 동일할 때, 중국 출신이나 조선족 출신보다는 기타 국적(일본, 러시아, 몽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이 그리고 기타 국적 출신보다는 필리핀 국적 출신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학력변수, 거주기간, 출신국적 변수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김안나·최승아, 2012; 김혜미, 2013).

표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여부에 대한 이항 로짓분석 결과

		B	S. E.	Wald	df	Sig.	Exp(B)
소인 요인	연령	-.025	.003	54.349	1	.000	.975
	성						
	여성	1.638	.100	267.796	1	.000	5.147
	학력						
	고졸	-.156	.059	6.869	1	.009	.856
	전문대졸 이상	-.295	.070	17.758	1	.000	.744
	거주기간	-.016	.006	6.434	1	.011	.984
	취업여부						
	취업	.049	.050	.951	1	.329	1.050
	출신 국적						
	조선족	-.814	.078	108.373	1	.000	.443
	중국	-.319	.070	21.009	1	.000	.727
	베트남	.137	.079	2.989	1	.084	1.147
필리핀	.486	.080	36.510	1	.000	1.625	
가능 요인	한국어 능력	-.022	.007	11.144	1	.001	.978
	모국인 지지망	.072	.019	14.595	1	.000	1.074
	한국인 지지망	-.009	.018	.226	1	.635	.991
	기타 지지망	.032	.048	.451	1	.502	1.033
	참여모임수	.293	.023	155.440	1	.000	1.340
	가족내 권력	-.050	.022	5.281	1	.022	.951
	기초보장 수급여부						
	수급	.463	.188	6.042	1	.014	1.589
	거주지역						
도시	-.436	.049	78.971	1	.000	.647	
욕구 요인	경제수준	-.010	.013	.618	1	.432	.990
	사회서비스필요도	.033	.002	219.089	1	.000	1.034
	건강상태	-.032	.024	1.806	1	.179	.968
	미취학아동유무						
	있음	.278	.053	27.489	1	.000	1.321
상수	-.703	.254	7.665	1	.006	.495	
N		14260					
-2Log likelihood		11272.451					

* 성, 학력, 취업여부, 출신국적, 기초보장수급여부, 거주지역, 미취학아동유무 등 더미변수의 기준변수는 남성, 중졸이하, 미취업, 기타국적, 비수급, 농촌, 미취학아동 없음임.

하지만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들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여부에 관한 로짓분석 결과는 앞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상이하다. 인지여부에 대한 분석에서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내 오래 거주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더 높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은 오히려 한국내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는 정보이므로 축적되는 속성이기 있기 때문에, 오래 거주할수록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은 필요성과 관련 된다는 점에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사회 적응하는데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과 관련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인지여부에는 학력변수와 출신국적 변수인 조선족이나 중국 국적이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이용여부에는 중졸이하가 고졸이나 전문대졸보다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조선족이나 중국 출신이 기타 국적보다 이용 가능성이 낮은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한 서비스가 한국어 서비스(서비스별 이용실적을 고려할 때 특히 그러함) 등, 한국사회 적응관련 서비스라는 점에서 조선족이나 중국 출신 외국인 배우자가 동남아나 러시아 등 기타 국적 출신보다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가능요인 변수들의 영향을 보면, 한국어 능력 변수, 모국인 지지망, 참여모임수, 가족내 권력 변수, 기초보장수급여부, 거주지역 변수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어 능력이 떨어질수록, 모국인 지지망이 많을수록, 참여모임수가 많을수록, 가족내 의사결정을 남편이 주도할수록, 기초보장 비수급자보다 수급자가, 도시보다는 농촌지역 거주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구사능력이 좋을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한 서비스가 한국어서비스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이용확률도 떨어지는 것으로 추론된다. 모국인 지지망이나 참여모임수는 사회적 지지망이나 관계망 관련 변수라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망이나 관계망이 좋을 때, 서비스 이용에서도 더 적극적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김혜미(2013)은 모국인 지지망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관계를 연결효과(linkage)라고 칭하며, 외국인 배우자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모국인 지지망이 중요한 연결장치의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기초보장 수급자들이 비수급자보다, 도시지역 거주자보다 농촌지역 거주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족들의 한국사회적응서비스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김혜미(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도시지역 거주자보다 농촌지역 거주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도시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다른 기관들(예컨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또는 기타의 민간기관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다른 기관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여 도시 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족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서로 경쟁적이라면, 농촌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러한 자원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거주자들이 도시지역 거주자들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앞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 요인과 비교하여, 특이한 점은 한국어 능력 변수의 영향이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결혼이민자일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는데 반해, 이용할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문화가족센터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은 정보차원의 문제이고, 이용은 필요성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 가능성은 높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한국어 교육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할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추론된다.

끝으로 욕구요인 변수들의 영향을 보면, 사회서비스필요도, 미취학아동유무 변수가 유의수준 .05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이 동일할 때, 사회서비스필요도가 높을수록, 미취학아동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 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필요도는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하며,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10가지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정도를 측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결혼이민자일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미취학아동이 있는 경우도 없는 경우보다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크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욕구요인 변수들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여부 및 이용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면, 두 경우 모두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욕구가 큰 결혼 이민자일수록 다문화가족센터의 존재를 알 가능성도 높고, 이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배우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분석하고, 비교하여, 함의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전국 다문화가족을 모집단으로 하여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항로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들의 연령이 적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취업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필리핀 출신이 러시아, 몽골 등 기타 국적 출신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모국 출신 지지방이 강할수록, 한국인 지지방이 강할수록,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 많을수록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낄수록, 미취학아동이 있는 외국인배우자가 미취학 아동이 없는 경우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남성 외국인 배우자보다는 여성 외국인 배우자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 배우자보다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한국내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출신국적이 조선족이나 중국 국적 보다는 기타 국적 출신들이 또한 기타 국적 출신보다 필리핀 출신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요인의 영향을 보면, 한국어능력이 떨어질수록, 모국인 지지방이 강할수록, 참여하는 모임이 많을수록, 가족

내 의사결정을 남편이 주도할수록, 기초보장을 공급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공급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보다,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클수록, 미취학 아동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없는 배우자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유사하였지만, 거주기간, 학력변수, 출신국적 그리고 한국어 능력변수의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 변수, 한국어능력 변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여부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여부에는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수의 영향이 인지여부와 이용여부에 서로 상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는 정보에 관한 부분이므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어를 잘 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은 필요성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어를 잘 한다든지, 한국내 거주기간이 길면, 그 만큼 한국사회에 적응을 많이 하여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응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선족이나 중국 국적, 학력변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할 확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은 조선족이나 중국 국적 출신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고졸이나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 배우자가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배우자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기타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보다 조선족이나 중국 출신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학력 수준이 높은 외국인 배우자가 학력이 낮은 외국인 배우자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준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립된 다문화가족들을 직접 찾아가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과 함께, 다양한 언어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한 인지확률은 한국어를 잘 구사할수록, 그리고 본국 출신 지지망 및 한국 출신 지지망이 강할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결국 사회적 지지망이 없든지 한국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인지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

을 의미한다. 특히 거주기간이 짧을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안 되며, 한국어능력이 떨어지는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직접 찾아가는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는 그러한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수집하여, 출신 국적별 언어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홍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국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또한 한국어 구사능력이 좋을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그러한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을 잘 하여서, 더 이상 적응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들 역시 여전히 한국사회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평가해 보고, 그것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선 또는 새로운 적응지원서비스의 개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와 더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로 다양화할 필요성도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확률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적에 따라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가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욕구사정이 필요하며, 그에 기초한 적응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망, 특히 모국 출신 지지망의 형성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 개입전략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지지망이 강할수록, 특히 본국 출신 사회적 지지망이 강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도 높고, 이용할 가능성도 높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사회 적응하는데 있어서 본국 출신 사회적 지지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 강복정(2012).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서비스의 현황분석-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5(1), pp.143-184.
- 김성한, 윤은숙(2009). 도시와 농촌간 장애인복지서비스 인지도 비교연구-충남 거주 장애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8, 한남대학교. pp.41-55.
- 김신영(2006).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결정요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32, pp.99-117.
- 김안나, 최승아(2012).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영향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pp.295-334.
- 김이선, 정해숙, 김영주(2008).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농림부.
- 김태일, 도수관(200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 분석. *사회복지정책*, 21, pp.341-365.
- 김혜미(2013). 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4(4), pp.57-94.
- 김혜영, 이현선(2014).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현황과 정책방향. 2014년 한국다문화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48-73.
- 박정윤(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컨텐츠연구*, 7, pp.31-62.
- 법무부 출입국 외국정책본부(2014). *출입국 외국인통계 월보*, 2014년 7월호.
- 변화순(2014). 한국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와 전망. 2014 한국다문화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다문화가족학회. pp.13-29.
- 서지은, 최현미(2012).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서비스 이용결정 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28(3), pp.23-43.
- 설동훈, 윤홍식(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2), pp.109-133.
- 성향숙(2010). 결혼이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pp.25-43.
- 여성가족부(2013).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4).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 여성부(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연구*.
- 이오복(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통한 정착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4), pp.25-56.

- 이오복(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부산.
- 이용재, 배화숙(2008).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pp.479-504.
- 이주재, 김순규(2010). 결혼이민 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30, pp.299-322.
- 이중섭(2009).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2), pp.75-102.
- 이혜경(2007). 결혼이주자 가족정책 및 서비스 분석모형. 다문화가족연구. 다문화가족센터, pp.23-42.
- 전국다문화가족사업단(200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8년 사업성과 및 평가.
-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2012).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사업 결과보고서.
- 전기택, 정해숙, 김이선, 김영란, 주재선, 김혜영 외(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조주은(2003). 장애가 정보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7(6), pp.209-232.
- Anderson, Ronald M. (1995). Revisiting the behavioral model and access to medical care: Does it matt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pp.1-10.
- Anderson, Ronald M., Newman, John F. (1973). Societal and individual determinant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Health and Society*, 51(1), pp.95-124.
- Gill, Corinne E., Hinrichsen, Gregory A., DiGiuseppe, Raymond (1998). Factors associated with formal service use by family members of patients with dementia.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7(1), pp.38-52.
- Kadushin, G. (2004). Home Health Care utilization: A review of the research for social work. *Health and Social Work*, 29(3), pp.219-244.
- Tichenor, P. J., Donohue, G. A., Olien, C. N. (1970). Mass media flow and differential growth in knowledge. *Public Opinion Quarterly*, 31.

손병돈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빈곤문제 및 빈곤정책, 노인빈곤, 다문화가족복지 등이며, 현재 빈곤 및 다문화복지, 한국사회복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bdsong@ptu.ac.kr)

Factors Associated with Cognition and Uti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mong Foreign Spouses of Multicultural Families

Shon, Byong Don
(Pyeongtae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cognition and uti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mong foreign spouse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uses the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2012' for its analyses. That is analyzed with binary logistic mode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ge($b=-.015$), female($b=.890$), status on employing($b=-.102$), length of residence($b=.013$) and ethnic background($b=.524$) were significant social demographical factors influencing the foreign spouses' cogni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MFSC). Among resource factors, language ability($b=.022$), relationships with people from home country($b=.060$), relationships with Korean people($b=.051$) and place of residence were founded to be associated with the cognition of MFSC. Both need factors, perceived need for the services($b=.016$) and status on having children($b=.277$)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cognition of MFSC. Second, age($b=-.025$), female($b=1.638$), education levels[high school($b=-.156$), college($b=-.295$)], length of residence($b=-.016$), ethnic background[Korean-Chinese($b=-.814$), Chinese ($b=-.319$), Philippine($b=.486$)] were significant social demographical factors influencing the foreign spouses' uti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MFSC). Among resource factors, language ability($b=-.022$), relationships with people from home country($b=.072$),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s status($b=.463$) and place of residence($b=-.436$) were founded to be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MFSC. Both need factors, perceived need for the services($b=.033$) and status on having children($b=.278$)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utilization of MFSC.

Keywords: Foreign Spouses of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Social Support